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규영¹, 김윤희^{1*}
¹부경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Gyoo-Yeong Cho¹, Yun-Hee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성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2014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여대생 322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성 경험 유무, 성지식,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이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 경험이 있을수록 ($\beta=0.115, p=.040$), 성지식 수준이 높을수록($\beta=0.118, p=.028$), 성폭력 허용도 수준이 낮을수록($\beta=-0.290, p<.001$),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을수록($\beta=-0.104, p=.048$)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21.7%였다.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 가치관 중재변인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exual autonom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ex educ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22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with 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significant factors of sexual autonomy were intercourse experience ($\beta=0.115, p=.040$), sex knowledge ($\beta=0.118, p=.028$),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beta=-0.290, p<.001$), and the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beta=-0.104, p=.048$). These factors explained 21.7% of the variance in sexual autonomy.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sexual autonomy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Key Words : Sex, Autonomy, Knowledge, Attitu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WHO에서는 성 건강을 성과 관련하여 단지 질병,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하면서 강제, 차별, 폭력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다[1]. 이러한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성적 자율성이 필요하며, 특히 성인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건강한 성

경험을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보고되고 있다[2].

성적 자율성은 성적 관계의 맥락에서 외부압력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성적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성관계를 시작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임을 사용하는 등과 같은 성적 관계의 조건을 협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원치 않는 임신,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성병감염 등의 여러 가지 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3,4].

우리나라 남, 여 고등학생 중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Kim(Pukyong National Univ.)

Tel: +82-51-629-5783 email: soohappy@pknu.ac.kr

Received September 11, 2014 Revised (1st October 6, 2014, 2nd October 16, 2014, 3rd October 24, 2014, 4th October 28,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각 5.8%, 1.8%였으나[5], 대학생은 남, 여 각각 50.8%, 19.0%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행동 제약을 덜 받는 대학교에서 이성 간의 실질적인 성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학생 성태도 실태조사[6]에 의하면 성관계 시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57.8%에 불과하여 이탈리아 대학생들의 피임 실천율 83.3%에[7]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남·녀 모두 선호하는 피임법인 콘돔은 남성 주도적 피임법으로 남성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여대생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으로 성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이렇게 낮은 피임실천율의 결과로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9.4%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의 78.1%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으며[6],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8]에서 전체 인공임신중절률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대생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병 발병률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후천성면역결핍증도 다른 연령에 비해 대학생 해당 연령군인 20-24세 그룹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여성의 100%가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어[9] 여대생들의 성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성적 자율성이 초기 청년기의 절적인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을 고려해 볼 때 [10], 여대생 자신이 성적 관계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성적 자율성을 갖추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11]에서 임신, 성병 등의 생리적인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태도, 성폭력, 성역할, 성규범 등의 성 가치관에 관한 교육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 가치관과 성적 자율성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중재 가능한 변인들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성적 자율성과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높고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성관계와 성행동에 대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11]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적 자율성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부정함으로써 개

인의 정체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성을 수단화하고 자아의 경험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문제 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강간과 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를 망라할 수 있으며, 폭행과 협박이라는 현행법상의 강간죄의 구성 요건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성폭력의 기준으로 부각될 수 있다[12]. 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트 상대의 억압과 강요에 의한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대학생에게서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인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여대생 자신이 성폭력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봄으로써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율성의 중재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서는 남성에게는 혼전이나 혼외관계에서의 성이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엄격하게 혼전 순결과 결혼 내의 정절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존재하고 있다[15].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성규범과 새로운 성 개방 풍조가 혼재된 상태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두 가지 규범 속에서 모순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성행위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임신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남성과는 달리 부도덕한 여성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난과 억압을 받고 있어 특히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16]. 그러나 여성학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미혼모 문제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와 이중적인 성기준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미혼모들 역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미혼모들도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6]. 그리고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실제 성행동에서도 수동적인 역할을 할 경향이 높아 성적 자율성이 저해되며[17],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도 낮은 것으로 선행연구[18]에서 나타났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것임을 볼 때, 여대생이

가지는 미혼모 인식 정도가 성적 자율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미혼모 인식을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개방적으로 변화된 성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는 다른 성도덕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성인기에 접어드는 여대생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대생들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과 같은 성 가치관 변인들과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와 미혼모 인식의 성 가치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대생들이 성관련 문제에서 예방적 행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적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과 주요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용어정의

1.3.1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어느 정도까지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인지를 의미하며[19], 본 연구에서는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20]에서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3.2 미혼모 인식

미혼모 인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18], 본 연구에서는 Im, Choi[21]의 연구를 근거로 Whang[18]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3.3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성 정체성의 맥락 속에서 외부 압력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윤리 내에서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22]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hang[23]의 연구를 근거로 Whang[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와 M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크기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다. G*Power(3.1.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정도인 효과크기 .10, 검정력=.95, 독립변수 9개를 포함하였을 때 245명으로 산정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미비한 경우 28명의 자료를 제외한 322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지식

성지식은 Ho[24]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생식기, 임신 및 출산, 성 건강, 성행위 내용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모르겠다'는 0점,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성지식 전체와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이었다.

2.3.2 성태도

성태도는 Ho[24]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성, 동성애, 혼전 성관계, 낙태, 성매매, 결

혼란에 대한 내용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3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성태도 전체와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3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의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20]에서 개발한 총 12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언어적·물리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성폭력 허용도 전체와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4 미혼모 인식

미혼모 인식은 Im, Choi[21]의 연구를 근거로 Whang[18]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미혼모 발생, 정서적 인식, 보호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인적 삶에서의 수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체 1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혼모 인식 전체와 성적 자율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Whang[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3.5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Chang[23]의 연구를 근거로 Whang[18]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총 1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ha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학문적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응답을 하

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양측검정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 및 성적 자율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는 t-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셋째, 성적 자율성과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넷째,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1-2학년은 245명(76.1%), 3-4학년은 77명(23.9%)이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명(40.7%)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234명(72.7%), 혼자 거주는 88명(27.3%)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7명(76.7%),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는 75명(23.3%)이었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81명(25.2%)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적 자율성은 이성교제 경험 유무, 성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경우가 이성교제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077, p=.039$).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적 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3.030, p=.003$).

[Table 1] Sexual Autonom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22)

Variables	Categories	n(%)	Sexual autonomy		
			M±SD	t	p
Grade	1-2	245(76.1)	3.90±0.53	1.833	.068
	3-4	77(23.9)	4.03±0.61		
Residence	Family residence	234(72.7)	3.95±0.57	-0.972	.332
	Alone	88(27.3)	3.88±0.50		
Religion	No	191(59.3)	3.90±0.53	0.951	.342
	Yes	131(40.7)	3.96±0.53		
Hetero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	No	75(23.3)	3.81±0.57	2.077	.039
	Yes	247(76.7)	3.96±0.54		
Intercourse experience	No	241(74.8)	3.88±0.51	3.030	.003
	Yes	81(25.2)	4.09±0.63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대상자의 성지식은 1점 만점에 평균 0.51±0.11점(범위 0.00~0.73)이었고, 성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0.30점(범위 1.83~4.33점)이었다. 성폭력 허용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27±0.42점(범위 1.00~3.25점)이었으며, 미혼모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2.57±0.50점(범위 1.08~5.00점)이었다. 성적 자율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3±0.55점(범위 1.15~5.00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22)

Variables	Min.	Max.	M±SD
Sexual knowledge	0.00	0.73	0.51±0.11
Sexual attitude	1.83	4.43	3.55±0.30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1.00	3.25	1.27±0.42
Perception unwed pregnancy	1.08	5.00	2.57±0.50
Sexual autonomy	1.15	5.00	3.93±0.55

3.3 성적 자율성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과 성적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적 자율성은 성지식($r=.191,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성폭력 허용도($r=-.319, p<.001$), 미혼모 인식($r=-.136, p=.01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성태도($r=.071, p=.204$)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in Variables and Sexual Autonomy

(N=322)

Variables	Sexual autonomy	
	r	p
Sexual knowledge	.191	.001
Sexual attitude	.071	.204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319	<.001
Perception unwed pregnancy	-.136	.015

3.4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이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132에서 .127로 .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71에서 0.96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는 1.019에서 1.48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잔차의 가정을 만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잔차의 정규분포성, 선형성, 등분산성의 가정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은 모두 충족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이성교제 경험 유무 및 성경험 유무와 함께 주요변수인 성지식, 성태도, 성폭력 허용도 및 미혼모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성적 자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볼 수 있도록 일괄 투입 방식의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명목척도인 이성 교제 및 성경험 유무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적 자율성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83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1.9%였다.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경험 유무($\beta=0.115, p=.040$), 성지식($\beta=0.118, p=.028$), 성폭력 허용도($\beta=-0.290, p=.001$), 미혼모 인식($\beta=-0.104, p=.048$)으로 나타났다. 즉, 성경험이 있을수록,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 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 인식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N=322)

Variables	β	t	p
Constant		9.988	<.001
Hetero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 (1=Yes)	0.064	1.160	.247
Intercourse experience(1=Yes)	0.115	2.060	.040
Sexual knowledge	0.118	2.202	.028
Sexual attitude	0.059	1.110	.268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0.290	-5.489	.001
Perception unwed pregnancy	-0.104	-1.985	.048
Adj. $R^2=.219$ $F=12.83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 가치관 변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성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25.2%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성경험을 조사한 연구[11]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22%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가 40.7%로 2011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태도 실태조사[6]에서 보고된 피임실천율 57.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선호하는 피임방식인 콘돔은 남성 주도적 피임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임실천율이 낮게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관계 유무가, 주요변수에는 성지식,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이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 성경험 유무가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성경험과 성적 자율성을 파악한 연구[11]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성경험을 통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대처방법과 의지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25]에서는 성경험이 없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 1-2학년의 저학년 여학생임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들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거나 저학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 성경험과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층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을 규명한 기존 연구들[11,26]에서도 성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지식은 생식생리, 임신, 피임, 성병 및 남·녀의 성심리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이러한 성지식 정도가 성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성 건강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중재전략으로 알려져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성적인 관계에서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27]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남·녀의 성 욕구 표현의 차이와 일치 않는 임신과 성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 사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역할극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의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연구[28]에서

도 강간통념이 낮을수록 성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이는 성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피해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성적 자율성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대학생들의 성행동경험 조사연구[29]에 의하면 70%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76.7%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성교제 상황에서 각자의 성행동 요구수준이 다를 때 데이트 성폭력과 같은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대학생의 23%가 정도가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으며[30], 우리나라도 20.5%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31],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성적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14]을 고려해보면, 여대생의 안전한 성 건강 유지를 위하여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본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함의를 갖는 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2]. 서양의 개방적인 성문화와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 이중기준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성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대생 본인이 어떤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탐색하면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소집단 토론 등을 통한 자아성찰과정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 인식은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06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21]에서는 조사대상의 50%가 미혼모의 발생이 몸가짐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미혼모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63.8%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미혼모가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는 보고[32]를 통해 우리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미혼모 문제가 남성의 성은 충동적인 것이어서 억제하기 힘들고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으면서 수동적인 성의식을 가졌다고 믿게 하는 성차별적인 성문화와 성 이중기준이 원인이라고 보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16],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이웃일 수 있는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품어야 할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혼모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선적으로 10대 및 20대 초반의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미혼모가 된 경우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 집단이 되지 않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18].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일차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법과 함께 미혼모 문제를 전통적 성 윤리관과 성차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가 성적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을 파악한 선행연구[11]에서도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Do, Seo[2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태도가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타인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결과는 성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성태도를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한 일 도시의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성 가치관 변수들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변수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변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 가치관 변인중심으로 다각도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필요한 중재 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연구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25.2%가 성교 경험이 있으며, 이 중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는 40.7%에 불과하였다.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성경험 유무, 성지식, 성폭력 허용도, 미혼모 인식이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경험이 있을수록,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을수록, 미혼모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의 성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치 않는 성교나 임신 혹은 성병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 가치관 중심의 중재 변인들을 고려하여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역할극, 토론 등의 다양한 접근법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폭력 허용도 및 미혼모 인식과 같이 성 가치관과 관련된 중재 변인을 활용하여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성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Sexual health", Retrieved April 5, 2014, from 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

[2] D. Wight, A. Parkes, V. Strange, E. Allen, C. Bonell, M. Henderson, "The quality of young people's heterosexual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racteristics shaping subjective experience",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 40, no. 4, pp. 226-237, 2008. DOI: <http://dx.doi.org/10.1363/4022608>

[3] B. A. Auslander, J. Baker, M. B. Short, "The connection between young women's body 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Pediatrics Adolescents Gynecology*, vol. 25, no. 2, pp. 127-130, 2012. DOI: <http://dx.doi.org/10.1016/j.jpag.2011.11.008>

[4] C. Albrtyn, "Using rights and the law to reduce women's vulnerability to HIV", *Canadian HIV AIDS Policy Law Review*, vol. 5, no. 4, pp. 72-79, 2000.

[5] I. S. Oh, "A study on gender inequality awarenes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high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u university, 2012.

[6] K. R. Shin, H. J. Park, M. J. Kang, I. S. Park, S. R. Seo, O. H. Ahn, "Survey on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2011.

[7] G. La Torre, B. Unim, S. Micoli, E. Langiano, M. Ferrara, E. De Vito, "Change i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Italian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contraceptive methods and STDs(1988-2008):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21, no. 1, pp. 70-77, 2013. DOI: <http://dx.doi.org/10.1007/s10389-012-0519-6>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f Abor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2011.

[9]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ics of HIV infection", Retrieved April 29, 2014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10] M. A. Ott, S. G. Milstein, S. Ofner, B. I. Hapern-Felsher, "Greater experience: Adolescents positive motivations for sex",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 38, pp. 84-89, 2006. DOI: <http://dx.doi.org/10.1363/3808406>

[11] M. S. Choi, N. S. Ha,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10, no. 4, pp. 318-330, 2004.

[12] S. S. Shin, "Constructing meaning of sex violence and dilemma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omen and Society*, vol. 13, pp. 6-43, 2001.

[13] L. Rohini, A. G. Christine,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1, no. 6, pp. 717-731, 2006. DOI: <http://dx.doi.org/10.1177/0886260506287312>

[14] E. S. Lee,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victims while dating as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6, no. 3, pp. 266-275, 2010.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3.266>

[15] E. A. Impet, L. A. Peplau,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40, pp. 87-100, 2003.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0309552169>

[16] H. Kim,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Gender and Society*, vol. 6, no. 1, pp. 7-41, 2013.

[17] A. K. Kiefer, D. T. Sanchez,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 vol. 14, pp. 269-290.
DOI: <http://dx.doi.org/10.1111/j.1475-6811.2007.00154.x>

[18] I. M. Whang, "A study on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09.

[19] H. M. Nam,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3.

[2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study on the Korean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2000.

[21] A. D. Im, S. H. Choi, "A study on the general citizen's social perception toward unwed mom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10, pp. 191-202, 2006.

[22] D. T. Sanchez, A. K. Kiefer, O. Ybarra, "Sexual submissiveness in women ; costs for sexual autonomy and arous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2, no. 4, pp. 512-524, 2006.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5282154>

[23] S. B. Chang,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vol. 8, no. 1, pp. 106-115. 2002.

[24]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25] K. W. Kim, K. H. Kang, G. H. Jeong,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pp. 51-59,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51>

[26]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 20, no. 2, pp. 129-136,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29>

[27] Y.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tention and safer sexual behavior in the experienced university students of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356-366,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356>

[28] S. M. Park, W. Y. Song,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 17, no. 2, pp. 265-280, 2012.

[29] H. S. Kim, "The sexual behavior by the attachment and love style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1.

[30] C. U. Emilio, D. U. Monica, "Sexual relationship power as a mediator dating violence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colleg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7, no. 9, pp. 539-565, 2008.

[31] Y. K. Jang, "A study on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2.

[3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sues of unwed women", 47th Women Policy Foru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8.

조 규 영(Cho Gyo-Young)

[정회원]



- 1999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5년 9월 ~ 2010년 8월 : 마산 대학 간호과 조교수
- 2010년 9월 ~ 2013년 8월 : 영산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김 윤 희(Kim Yun-Hee)

[정회원]



- 1999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6년 7월 ~ 2011년 2월 : 금정 구보건소 및 부산시청 주무관
- 2011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건강증진